

배움이 일상 되는 나주시...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 시작

전남 최초 도입... 이달부터 12월까지 나주시민 2500명 대상 연 15만원 학습비 지원...104개 기관 293개 강좌 선택 수업

나주시가 시민들이 다양한 평생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을 전남에서 처음 시작한다.

나주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나주애(애) 배움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배움바우처 사업은 시민의 보편적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선 8기 역점 공약사업의 하나이다. 이번 사업에는 2757명이 신청했으며, 온라인 추첨을 통해 2500명을 최종 선정했다.

국가장학금과 여성바우처, 문화누리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이는 제외했다.

사업 참가자들은 연 15만원의 학습비(바우처카드)를 지원받는다.

이들은 평생학습 104개 기관이 제공하는 293개 강좌 가운데 선택해 수업을 받는다.

강좌 분야는 취미·교양, 체육, 공예, 음악, 미술, 어학, 컴퓨터, 직업 능력, 문해 등 다양하다.

개인의 취향과 특기에 맞춰 들을 수 있는 평생학습 강좌를 마련했다.

참가자는 이달부터 나주시 협암금융기관 광주은행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주시 평생학습정보방에 등록된 사용기관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신청·수강하면 된다.

나주시는 평생학습처(바우처 가맹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운영하며, 바우처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면 된다.

나주시 평생학습정보방 누리집에 사용기관으로 등록할 때 업체·업종이 교육서비스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교육기관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사용기관으로 등록하면서 교육 운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골프·당구·볼링 등 오락성 분야, 운전면허·보습학원·과의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은 제외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원하는 평생학습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도시, 배움이 즐거움이 되고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보편적 학습권 보장정책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가 이달부터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을 시작한다. 지역민들이 꽃꽂이 수업을 듣는 모습. <나주시 제공>

나주시 60세 이상 치매전수조사...10명 중 1명 '위험군'

지난해 치매환자 3년전 1.9배

나주시가 올해 60세 이상 시민 7800여 명을 치매 검사한 결과 13% 비중에 달하는 1034명이 치매 환자이거나 치매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나주형 치매 조기 검진'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올해 4월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백기를 맞은 치매 검진사업을 재정비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 3년간 60세 이상 시민 3만7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조기 검진을 할 방침이다.

올해 검진 목표는 1만2000명으로, 이달 현재까지 7874명에 대한 검진이 이뤄졌다.

검진 결과 나주시는 치매 환자 526명과 치매 발병 우려가 있는 인지저하·경도인지장애 대상자 508명을 각각 발굴했다.

지난달 말 기준 나주시 60세 이상 인구는 모두 3만7883명으로, 전체 인구의 32.3%를 차지한다.

나주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나주시 60세 이상 인구는 2030년 4만4212명, 2040년 5만4926명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6%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나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나주시 치매 환자는 지난해 기준 3667명으로, 2019년(1919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검진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지소·진료소에 찾아가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마을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는 검진도 하고 있다. 센터는 검진 대상자를 치매안심통합관리(ANSYS)에 등록·관리하며 맞춤형 의료지원을 발의 방침이다.

관리 대상자는 치매 검사비와 치매 치료관리비, 치매 환자 조호물품, 배회 우려 어르신 인식표 등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원활한 전수조사 진행을 위해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달고 우편·문자·안내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과 적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 생활을 위한 전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더불어 치매를 극복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son@kwangju.co.kr

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원활한 전수조사 진행을 위해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달고 우편·문자·안내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과 적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 생활을 위한 전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더불어 치매를 극복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 대상자는 치매 검사비와 치매 치료관리비, 치매 환자 조호물품, 배회 우려 어르신 인식표 등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원활한 전수조사 진행을 위해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달고 우편·문자·안내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과 적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 생활을 위한 전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더불어 치매를 극복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과 적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 생활을 위한 전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더불어 치매를 극복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군수 이상익·가운데)이 13일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실현 전담반 출범식'을 열고 회의를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태스크포스 출범

농축산·SOC 등 4개 분과

함평군이 13일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전담반(태스크포스)을 출범했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이상의 함평군수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공동 발표한 뒤 이뤄진 조치다.

전담반은 함평군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이고 신속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됐다.

이 군수는 인사말에서 "함평군은 인공지능(AI) 축산, 첨단 농장(스마트팜), 해양관광 등 1조 7000억원 규모 함평 미래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반은 임만규 함평군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지역개발분과, 관광·체육분과, 농축산업분과, 기반시설(SOC)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지역개발분과는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 건설과 데이터센터 집적단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담당한다.

관광·체육분과는 함평만 해양관광 중심지 조성사업과 종합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농축산업분과는 AI 첨단축산업 융복합밸리·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전담한다.

SOC 분과는 함평전 통합 하천사업과 국지도로 개설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담반은 소관 사업별로 전남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전담반은 임만규 함평군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지역개발분과, 관광·체육분과, 농축산업분과, 기반시설(SOC)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지역개발분과는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 건설과 데이터센터 집적단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담당한다.

담양군 '독거노인·장애인 안심서비스' 확대

담양군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독거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화재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화재·가스 감지와 활동 감지 센서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 관리 요원과 119 요원이 신속 출동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돌봄서비스다.

담양군은 이번에 300대를 추가 설치해 1355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응급 관리 요원과 생활지원사가 어르신께 작동법을 안내하고 장비 작동 여부를 수시 확인해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올해 현재까지 55건의 응급신고가 접수됐으며, 응급상황에 놓인 어르신들을 신속하게 보호했다.

대상자로 신규 선정된 담양읍의 한 어르신은 "도움이 필요할 때 버튼을 누르면 119와 자녀에게



담양군 관계자가 지역 독거 노인을 찾아 어르신을 찾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까지 한 번에 연락이 가고 119 요원이 출동한다고 하니 안심이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흥군 추석 귀성객 맞이 도로변 풀베기 작업

장흥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 맞이 일환으로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실시했다.

장흥군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개선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작업을 마련했다.

탐진강 변 잡초와 잡목을 정리하고 주거지 주변

과 도로변에 난 풀을 치우기로 했다. 또 주요 도로와 가로 화단, 작은 공원 등 환경 정비에도 나선다.

장흥군 관계자는 "안전한 차량운행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 주변 환경정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 중·고생 책가방 기부

지역 미래 꿈나무를 위해 책가방을 기부하는 훈훈한 행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장성군에 최근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가 장성 지역 중·고등학생을 위해 책가방 100개(1700만원 상당)를 군에 기탁했다.

책가방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흥도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장은 "장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탁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가 장성지역 중·고등학생을 위해 책가방 100개를 기탁했다. 김한중(왼쪽) 장성군수와 장흥도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장. <농협중앙회 제공>

김한중 장성군수는 "책가방을 기탁해 주신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군도 학생들이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기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이·미용업 104곳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공표 최우수·우수 등급 21곳

강진군이 13일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과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해 지난 6~8월 실시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며, 올해는 이·미용업 104곳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업소를 방문해 평가표 항목에 따라 점검했다.

평가 결과 이·미용업소는 우수등급인 황색등급이 14곳, 일반관리대상 등급인 백색등급이 6곳으로 나타났다.

미용업소는 최우수 등급인 녹색등급이 7곳, 황색등급이 52곳, 백색등급은 23곳이다.

업소별 등급은 강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올해부터 최초로 최우수 등급인 녹색등급으로 선정된 업소 7곳에 최우수 업소 표지판을 부착하고 업소별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곡진 강진군 문화관광실장은 "관내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유도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